

##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와 실천투쟁의 결부

백영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확립하자면 이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본질에 있어서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오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들로 만드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혁명대오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기 위한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여야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서만 사상적일색화를 더 굳건히 다질수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당과 수령의 권위와 혁명사상을 더욱 철저히 옹호보위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수령은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조직진행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의 목적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는데 있는것만큼 이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할 때에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당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

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현실로 구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내놓은 당과 수령에 대한 립장과 태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과 관련되어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떠나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논의할수 없다.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기본담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결국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말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 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고수하도록 하는데 있는것만큼 이것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는것은 실천투쟁속에서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사람의 사상은 말과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 치는 숭고한 품성을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지니고있는가는 그 사람의 말과 실천투쟁을 보 면 잘 알수 있다.

말과 실천투쟁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징으로 된 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는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 어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혁명하는 사람들가운데는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사 람 즉 말공부쟁이들이 있는것을 간혹 볼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충정심의 높 이가 서로 같지 않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과 실천이 다른 사람은 변질되었거나 변질 될수 있는 사람이다. 당의 사상대로 말하고 당에서 하라는대로 실천하는가 아니면 말과 실 천이 서로 다른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가 아니면 말로 굶때는가 하는것이 당 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말로는 충 정심을 떠들고 맹세를 많이 하여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천에서 빛내이지 못하는 사 람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참다운 충실성은 혁명적인 언사나 맹세에 있는것이 아 니다. 비록 말은 잘할줄 모르고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 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이며 자 기 한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 이 진짜배기혁명가이다.

우리의 실천투쟁은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사업이며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실천투쟁

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의 높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로 되며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충정으로 받들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그 어떤 사심이 없이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있는것만큼 이것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립장과 태도에서 혁명가들의 충실성정도가 평가되고 검증된다. 참다운 혁명가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간다. 그 누가 보건말건,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 어떤 대가나 리해관계가 있건없건 오로지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배기혁명가이다. 이런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림이 없이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진심을 다 바쳐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간다. 이것은 실천투쟁에서 그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가 아닌가가 뚜렷이 나타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이라면 그 충정심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름아닌 실천투쟁이다.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 그것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철저히 구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정책을 관철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 혁명적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이나 순간의 지체도 없이 즉시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바치는것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바치려는 깨끗한 량심과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자그마한 드림이나 미흡한 점이 생겨도 죄송감으로 하여 자책속에 모대기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 투쟁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지 않고 조건타발을 앞세우며 시키는 일이나 마지못해 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이 없는 표현이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지 않는 태도이다.

헌신적인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훌륭하게 관철하고 자나깨나 항상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신념과 의리가 있고 사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고 실천투쟁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정을 다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평가하는데서 실천투쟁보다 좋은 자막대기는 없다.

혁명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며 무엇을 바라고 혁명하는 사람은 더구나 아니다. 참다운 혁명가의 마음에는 안팎이 따로 없다.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평가를 받건 처벌을 받건 언제나 한마음으로 당과 혁명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는것이 혁명전사의 참모습이다. 자기의 혁명초소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지켜 남다른 실적을 올린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그 누구나가 다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든 진짜배기혁명가들이다. 그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명예를 생각하여서는 할수 없는 그들의 영웅적위훈은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순결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세기와 년대를 이어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